

네덜란드

주요국 예산안

2025.12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6일에
딕 스토프 내각 사임 후 정치적 과도기인 직무대행 상태에서 발표한
'2026 예산안(Miljoenennota 2026)'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연구진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박정흠 재정제도분석팀장

봉재연 책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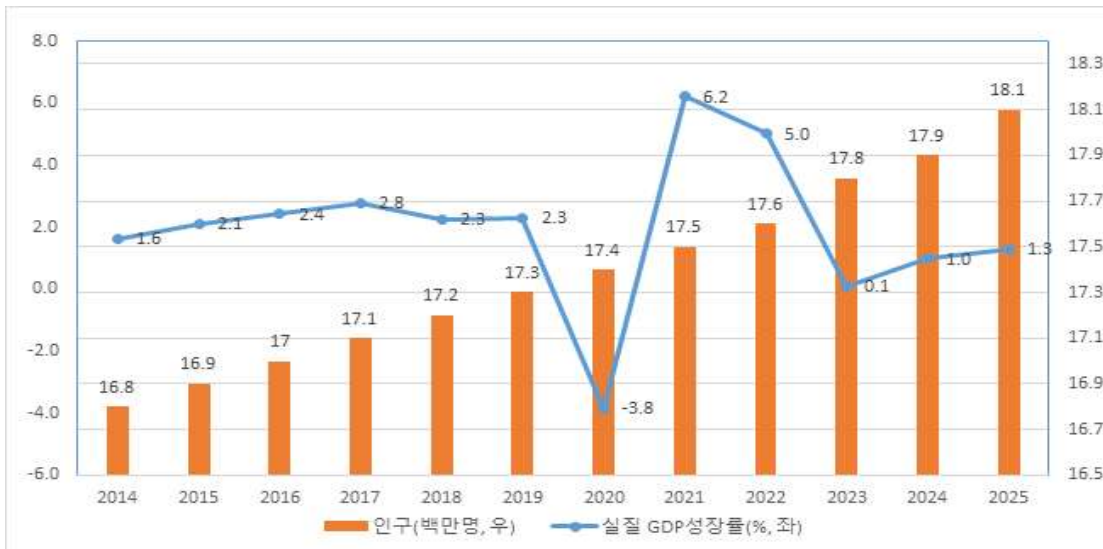
Contents

1	경제 및 재정 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4
2	재정 기초 및 정책 방향	7
3	수입 및 지출 전망	12
가.	수입 전망	12
나.	지출 전망	14
4	주요 정책	20
가.	사회·복지 및 노동	20
나.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22
다.	인프라 및 환경·에너지	23
라.	교육 및 혁신·기술	24
마.	국방 및 국제관계	25
바.	사법 및 행정 등	27

네덜란드 일반현황

- 2026년 회계연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내각: 디 스토프가 이끄는 내각¹⁾ 사임(2025년 6월)으로, 2025년 10월 29일에 조기 총선이 실시²⁾되었으며, 현재(2025년 11월)는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임. 2026년 예산안은 정치적 과도기인 직무대행 상태에서 발표되어 새롭고 논쟁적인 정책 집행 없이 재정 규율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기존 정책의 현상 유지 및 필수적인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자료 : 2026년 네덜란드 예산안(Miljoenennota 2026)³⁾
- 환율 : 1유로 = 약 1,475.05원(2024년 평균)⁴⁾
- 경제규모 : GDP 1조 2,149억달러(2024년 기준)⁵⁾
- 인구 : 1,810만명(2025년 기준)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단위: 백만명, %)



자료: OECD, OECD Data - Real GDP forecast, <https://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indicator-chart>, 검색일자: 2025.11.11.
네덜란드 통계청 Population counter, <https://www.cbs.nl/en-gb/visualisations/dashboard-population/population-counter>, 검색일자: 2025.11.11.

- 1) 스토프 내각은 2024년 7월 2일에 출범하였으나, 2025년 6월 3일, 자유민주당(VVD)은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정(자유당(PVV), 자유민주당(VVD), 신사회계약당(NSC), 농민시민운동당(BBB)으로 구성)을 탈퇴하여, 2025년 6월 사임
- 2) 원래 차기 총선은 2028년 3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었음
- 3)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en begrotingen," 2025.9.16.,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 검색일자: 2025.11.12. ; _____, Kamerstuk(의회제출문서), 2025.9.16., https://www.rijksfinancien.nl/sites/default/files/kamerstuk_pdf/kst-36800-1_1.pdf, 검색일자: 2025.11.12.; _____, Kamerstuk(Bijlage)(의회제출문서(부록), 2025.9.16., https://www.rijksfinancien.nl/sites/default/files/kamerstuk_pdf/kst-36800-2_1.pdf, 검색일자: 2025.11.12.
- 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갱신일: 2025.12.3.,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5.12.3.
- 5) _____, 경제통계시스템, 국제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갱신일: 2025.12.3.,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5.12.3.

요 약 SUMMARY

- (경제 전망) 2023년 경기침체 이후 경제가 점차 회복되어 경제성장률은 2025년 1.6%, 2026년 1.4%로 전망.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과 무역장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
 -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2025년 3.2%, 2026년은 2.3%으로 하락 전망
 - 실업률은 2025년 3.8%, 2026년 4%로 여전히 낮게 유지되지만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2025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1%, 2026년에는 -2.9%로 전망되고, 2025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4.9%, 2026년에는 47.8%로 예상
 - (재정수입) 2025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입은 36.19%, 2026년에는 전년 대비 0.39%p 증가한 36.58%로 전망
 - (재정지출) 2025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38.23%,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18%p 증가한 39.41%로 전망
-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2026년 예산안은 딕 스토프 내각 사임 후 과도 정부 체제 하에서 발표되었으며, 후임 정부가 자신들의 새로운 정책 의제와 목표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재정 운영을 필수적인 수준으로 제한
- (주요 정책) 구매력 유지와 생활 안정성 확보, 그리고 국가적 주요 위기(주택, 환경 및 기후, 국제안보 등)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사회보장 및 구매력 증진) 최저 임금 인상, 근로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고 빈곤율을 낮추는 데 집중
 - (주택) 만성적인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수당 지출을 증액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환경 보호 구역에 피해를 주는 질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자연 복원을 추진
 - (유럽 협력 및 국제 안보) EU분담금 및 유럽 협력 관련 지출 증액을 통한 국제적 역할 강화

1 | 경제 및 재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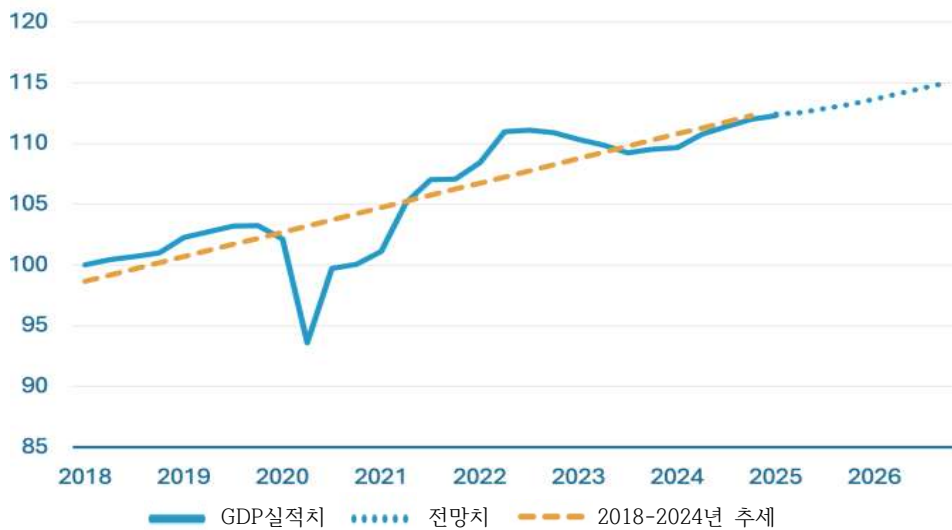
가 | 경제전망

» (경제) 2023년 경기침체 이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과 무역장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2025년 1.6%, 2026년 1.4%로 전망

- 네덜란드 경제는 2022년에 GDP 규모가 정점을 찍으며 과열 조짐을 보인 후, 2023년의 침체를 지나 2024년에는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반등
- 2023년의 실질 GDP 성장률은 -0.6%였으나, 2024년부터 가계소비 증가와 정부의 지출 증가로 경제가 회복
 - 네덜란드는 실업률과 정부부채가 상대적으로 낮고, 1인당 소득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높은 양호한 상태

〈 그림 1 〉 네덜란드 실질 GDP성장률 실적 및 전망

(단위: %, 2018=100)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Figuur 2, 2025.9.16.,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9910870> 검색일자: 2025.11.12

» (수출) 수출증가율은 2023년 -3.0%, 2024년 -0.2%, 2025년에는 1.4%로 점차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는 1.5%로 완만하게 유지될 전망

- 유럽 시장 중심의 안정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폭의 수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무역 중심 국가로, GDP의 35% 이상이 상품·서비스 수출에서 발생하며 전체 고용의 약 3분의 1이 수출에 기인
 - 2022년 네덜란드는 세계 6위 상품 수출국, 9위 서비스 수출국이었으며, 2024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9.5%임
 - 네덜란드 전체 수출의 약 75% 이상이 EU 역내에서 이루어지며, 운송·금융·ICT가 주요 비중을 차지
 - ◆ 2023년 기준 전체 수출의 77%가 유럽 국가로, 서비스 수출의 70%도 EU 내부에서 이루어짐
 - 네덜란드 수출 경쟁력은 낮은 단위 노동 비용, 높은 품질,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기인

»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2025년 3.2%, 2026년은 2.3%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보다 높고, 유로존 평균(2025년에는 평균 2.0%, 2026년에는 1.6%)보다 높은 수준임
 - 이러한 네덜란드와 유로존 간의 인플레이션 격차는 부분적으로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높은 임금 상승과 강력한 경제 발전에 기인
- 구매력은 소득세 감면 및 수당 인상,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임금 상승 속도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실업률은 2025년 3.8%, 2026년 4%로 여전히 낮게 유지되지만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약간 완화된 상태

-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긴장(구인난)은 완화되고 있음
 - 2025년 1분기에 순 노동시장 참가율이 73.1%인 네덜란드는 EU에서 가장 높은 노동참여율을 기록
 - ◆ 노동시장 참가율의 증가는 주로 여성, 노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입하였기

때문임. 이는 교육 수준 향상, 일에 대한 사회적 관점 변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완화, 건강한 기대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음

- 구인 공고 대비 실업자 비율은 2022년 2분기 100명당 142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 2분기에 100명당 101개로 하락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 공고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구직자가 가진 기술 사이에 미스매치(mismatch)가 존재하여 모든 실업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표 1 〉 2023~2026년 경제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GDP 증가율	-0.6	1.1	1.6	1.4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0.7	1.1	2.1	2.3
정부소비지출 증가율	2.8	2.7	1.3	1.7
투자(재고 포함) 증가율	-9.4	0.5	-0.7	3.2
수출(상품 및 서비스) 증가율	-3.0	-0.2	1.4	1.5
수입(상품 및 서비스) 증가율	-3.9	0.1	0.9	2.7
실업률(노동인구 대비 %)	3.6	3.7	3.8	4.0
소비자물가지수(HICP)	4.1	3.2	2.9	2.1
소비자물가지수(CPI)	3.8	3.3	3.2	2.3

주 : 1. 2025년과 2026년 수치는 잠정적인 거시 경제 예측치임
출처: Ministerie van Financiën, Het blauwe boekje 2025-2026 De economie en overheidsfinanciën in grafieken en tabellen, 2025.9. https://www.rijksfinancien.nl/sites/default/files/kamerstuk_related_items/Blauwe-Boekje-2025-2026.pdf, p.5. 검색일자: 2025.11.20.

나 재정 전망

- » **(재정수지)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5년 -2.1%, 2026년 -2.9%로 전망되며 EU 기준치인 GDP 대비 -3%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로는 -2.9%(약 355억유로 적자)로 예상됨

 - 2026년 중앙정부의 경우 349억 유로, 지방정부의 경우 7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이후 일반정부 협정의 조치⁶⁾로 미래 세대로의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출 증가를 제한함에 따라 2027년에는 GDP 대비 -2.4%(약 314억유로 적자)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2028년~2030년에는 GDP 대비 약 -2.0 ~ -2.1%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30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로는 -2.1%(약 307억유로 적자)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의 경우 299억 유로, 지방정부의 경우 8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 **(재정수입) 2025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입은 36.19%, 2026년에는 전년대비 0.39%p 증가한 36.58%로 전망**

 - 2025년 일반정부 수지 관련 수입(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은 4,296억유로이고, 2026년에는 4,514억유로로 전망
- » **(재정지출) 2025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38.23%로 전망되고, 2026년은 전년대비 1.18%p 증가한 39.41%로 전망**

 - 2025년 일반정부 수지 관련 지출은 4,538억 유로이고, 2026년에는 4,863억 유로로 전망
- »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44.9%와 47.8%에서 2027년에는 48.0%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EU 기준치인 6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과제로 인해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6) 2024년 출범한 스키프 내각(Schoof Cabinet)의 기반이 된 정책 합의문을 의미(자유당(PVV), 자유민주당(VVD), 신사회계약당(NSC), 농민시민운동당(BBB) 4개의 연립정부가 합의)하며, 이 협정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EU의 재정 준칙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출 제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2025-2028년 주요 정책 합의의 예산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 *Analyse hoofdlijnenakkoord 2025-2028*, 2024.5., <https://www.cpb.nl/analyse-hoofdlijnenakkoord-2025-2028>, 검색일자, 2025.12.23.)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및 의료 지출 증가, 금리상승에 따른 정부 이자 비용 증가, 안보, 국방,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필요성 증가
-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는 2030년에는 GDP 대비 49.5%로 증가하며, 2038년까지 GDP 대비 6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 향후 국가채무 추세는 불확실하지만, 인구 고령화는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세금부담과 정부지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추가 정책이 없다면 부채 비율이 GDP의 10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 표 2 〉 재정전망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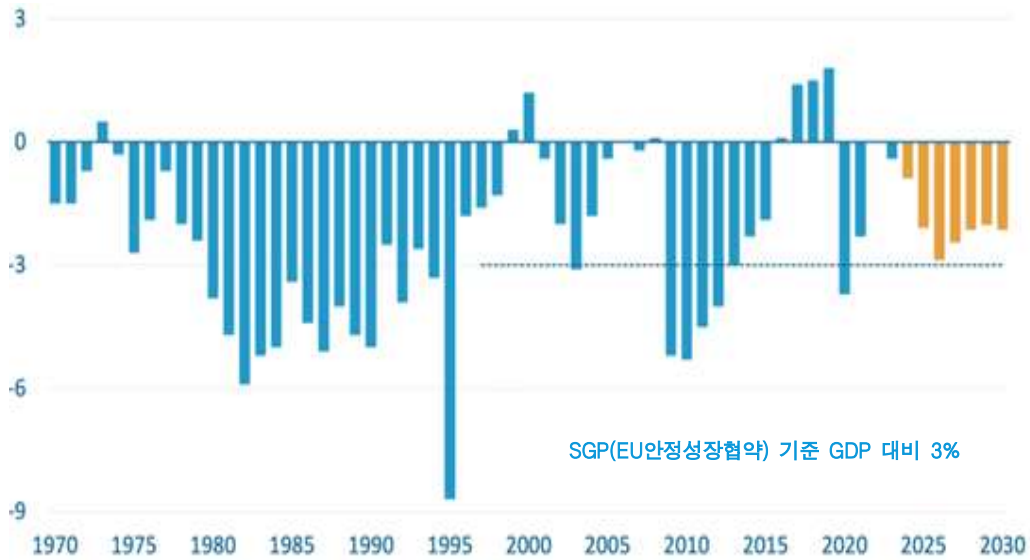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일반정부 재정수입	429.6	451.4	475.3	494.9	514.4	534.3
일반정부 재정지출	453.8	486.3	506.0	522.6	541.5	564.3
- 지출체계내의 정기적 순지출	422.9	449.0	481.3	497.6	515.5	535.8
- EMU 잔액과 관련된 기타 순지출 및 조정	30.8	37.3	24.7	25.0	26.0	28.4
일반정부 재정수지	-24.8	-35.5	-31.4	-28.5	-27.9	-30.7
(GDP 대비 %)	-2.1	-2.9	-2.4	-2.1	-2.0	-2.1
국가채무	533.2	589.7	616.2	649.3	678.5	710.4
(GDP 대비 %)	44.9	47.8	48.0	48.7	49.1	49.5
국내총생산(GDP)	1,187	1,234	1,283	1,332	1,382	1,436

주: 1. 일반정부 재정수지(EMU-saldo)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재정규율(안정 및 성장의 협약, SGP)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일반정부 재정수지(EMU-saldo)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일부 수정이 필요함. (일반정부 재정수지=수입(세금 및 보험료 수입) - 총 순지출+비관련 지출 조정+현금 차액+ 지방정부 재정수지)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2025.9.16. Tabel 1 발췌,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9911194>, 검색일자: 2025.11.12.

〈 그림 2 〉 정부 재정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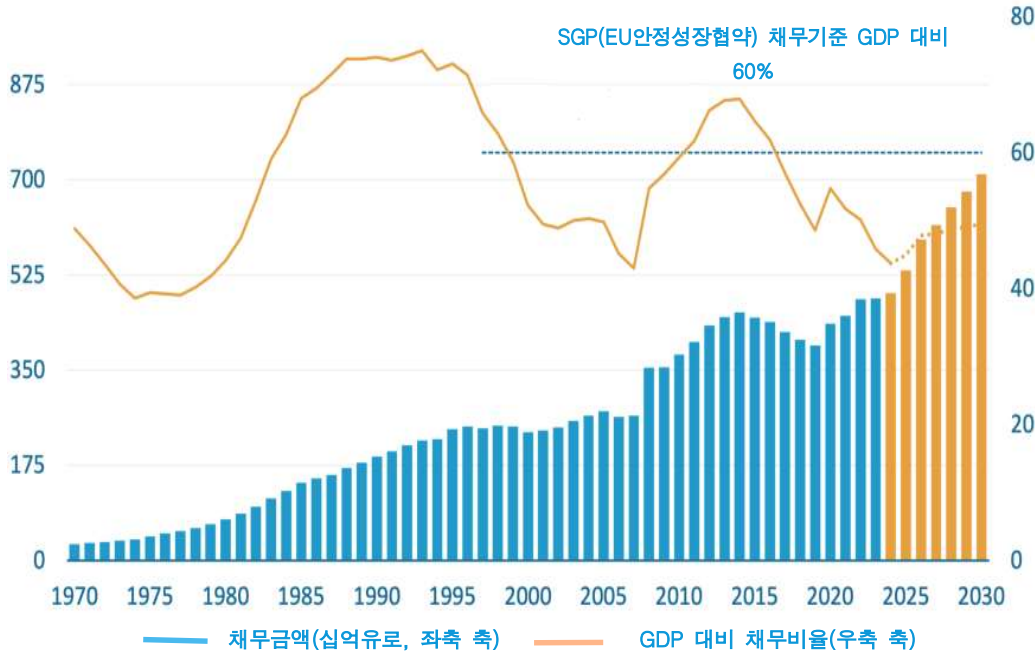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Figuur 13, 2025.9.16,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9910832>, 검색일자: 2025.11.12

〈 그림 3 〉 국가채무 비율 추이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Figuur 14, 2025.9.16,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9910832>, 검색일자: 2025.11.12

2 | 재정기조 및 정책방향

» (재정 기조) 과도 정부 체제 하에서 발표된 2026년 예산안에서는 ‘미래 선택을 위한 확고한 기반(a solid basis for future choices)’⁷⁾을 기조로 하여 재정 운영을 필수적인 수준으로 제한⁸⁾

-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여 후임 정부가 새로운 정책 의제와 목표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재정 규율과 추세 기반 예산 정책⁹⁾을 변함없이 추구하며, 네덜란드가 적자(최대 3%)와 부채(60%)에 관한 EU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¹⁰⁾하도록 함
 - 예산 규율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와 튼튼한 경제의 핵심 전제 조건
 - 임기 동안 정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각 내각은 연간 최대 지출액(지출 체계)과 세금 및 보험료에 대한 최대 허용 정책 조정액(수입 체계)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여 예산정책 시행의 명확한 경계를 제시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지침을 제공함
 - ◆ (과도 정부의 지침) 현재의 과도 정부 역시 이 체계를 지침으로 삼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체계를 종료하는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았음
 - ◆ (향후 조치) 현 과도 정부는 2027년부터 정부지출 증가를 제한할 것이며, 이후 정부들도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재정균형: 모든 투자와 지출은 예산 내에서 전액 자금을 지원하여, 예산 기간 (2027년~2030년 포함) 동안 수입 및 지출 체계의 균형을 맞춤. 이는 비용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음을 의미
 - 현 예산 각서의 예측 기간 동안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모두 기준값 내에 유지될

7) "미래 선택을 위한 확고한 기반(Solide basis voor toekomstige keuzes)"이라는 표현은 네덜란드 예산안이 과도 정부(Caretaker Government)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특수한 정치 상황과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목표를 동시에 반영함. 네덜란드는 예산안 발표 시점(2025년 9월) 직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도 정부는 정책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사업이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삼가고, 재정 운영을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으로 제한하여 네덜란드 공공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8) Budget day 2025: a solid basis for future choices, 보도일자, 2025.9.16.,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of-finance/news/2025/09/16/budget-day-2025-a-solid-basis-for-future-choices>, 검색일자, 2025.11.20.

9) 추세 기반 예산정책(Trend-based Budgetary Policy)은 네덜란드가 추구하는 핵심 예산방식으로, 이 정책의 목표는 건전한 재정, 예측 가능성,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임.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상황 변동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세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 경기가 호황일 때 세수가 증가해도 이를 즉시 모두 지출하지 않고, 불황일 때 세수가 부족해도 즉시 지출을 삭감하지 않아 시민과 기업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함(자동 안정화 역할)

10) 지속 가능한 정부 재정법(Wet houdbare overheidsfinanciën, Wet Hof)에 의해, 정부는 추세 기반 예산 정책을 수행할 때 유럽연합(EU)의 재정 기준값(적자 3%, 부채 60%)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고령화 비용 증가와 이자 지급액 증가로 인해 정부 재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전망

-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6년 2.9%로 예상되며, 2030년에 2.1%까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26년 47.8%로 예상되며, 이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

» (주요 정책) 정부는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증가하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

○ 구매력 및 생활비 안정

- 저소득층 세율 인하: 소득세 1단계 세율을 35.82%에서 35.70%로 인하하여 저소득 및 중산층 초입의 세금 부담을 완화
- 근로세액공제 확대: 근로 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 공제액을 소폭 인상하여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증대
- 청년 최저 임금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16세~20세 청년들의 최저 임금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임
- 주거비 부담완화: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해 임대료 수당(Huurtoeslag) 제도를 개편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¹¹⁾
- 유류세 감면 연장 : 주유소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디젤에 대한 소비세 인하율을 2027년 1월 1일까지 1년 연장(기존 계획 2026년 1월 1일 인상)

○ '돌봄에서 예방으로' 시스템 전환 및 취약 계층 돌봄 강화

- 청소년 돌봄에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7억 2,800만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장애인 돌봄에는 장기요양법 요율 인상 및 주택 유지보수 등을 위해 2억 6,300만 유로가 배정
- 복지 협정(AZWA)¹²⁾을 위한 보충 돌봄 및 협정 준비에 최대 1억 2,500만 유로가

11) 임대료 수당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2025.11.24., 네덜란드 재무부, 수당서비스 안내(임대료수당),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nl/huurtoeslag/content/huurtoeslag-verandert-vanaf-2026>, 검색일자, 2025.12.24

12) 2025년 9월 8일, 보충적인 돌봄 및 복지 협정(AZWA)이 체결되었음. 이 협정은 통합 돌봄 협약(IZA)과 건강한 적극적 생활 협약(GALA)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여 돌봄과 지원의 접근성과 평등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부족 문제를 더욱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책정

- 건강보험의 경우 1인당 월 보험료가 평균 3유로(156유로에서 159유로) 인상되는 동시에, 의료보험 수당도 증가

○ 주택 공급 및 시장 안정화

- 만성적인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함. 주택 관련 총예산은 2025년 72억 유로 대비 5억 유로 증가한 77억 유로로 증액
- 지방자치단체에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공급 인센티브로 채당 7,000유로씩 약 3억 6,200만 유로를 지원
- 임대료 동결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수당 지출을 증액

○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가속화

- 환경 보호 구역에 피해를 주는 질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자연 복원을 추진. 질소 배출량이 많은 가축 농장의 폐쇄 또는 이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
- 유럽 및 국가 가스 충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EBN가스 저장 지원에 연간 9,200만 유로(총 5억 1,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
-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및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IKC-ETS) 관련 보조금에는 10억 9,800만 유로가 배정

○ 국제 안보 및 국방 역량 강화

- 네덜란드는 NATO 지출 목표(GDP 대비 2%)를 충족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
- 네덜란드의 EU분담금은 2026년에 150억 유로이며, 2030년까지 180억 유로로 증가가 예상. 국제 안보 및 안정을 위한 국제 평화 유지 임무 및 기금 지원에는 3억 4,000만 유로가 배정. 또한, AI, 드론,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 산업 혁신에 11억 5천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

» (세금계획) 2026년 세금계획(Belastingplan)은 구매력 향상 외에 세금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

-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세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세금계획 패키지는 세법 간소화, 조세 회피 방지, 기후, 노동 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으로 구성되며, 세금계획 조치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화, 미디어, 스포츠에 대한 감면된 부가가치세¹³⁾ 유지 :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분야에 대해 감면된 부가가치세율을 철회하고 감면세율 9%를 유지
- 항공편 세율 차등화 : 더 많은 탄소 배출량을 발생시키는 장거리 항공편에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세율에서 비행거리(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따른 차등세율로 전환할 예정
 - ◆ 2026년까지는 기존 단일세율을 유지하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약 2.9% 인상된 30.25유로가 적용되며, 차등세율은 2027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
- 납세자의 정보 열람권 간소화 : 납세자가 세무 조사관이 보유한 세무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정비
-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Pillar2) 관련 OECD 행정 지침을 국내법에 통합하고, 신고된 정보를 회원국 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함
- EU국경 탄소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운영을 위한 환경 관리법 개정안 마련¹⁴⁾
- 친환경 차량 장려: 네덜란드 도로 위의 차량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배출 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추가 조치가 취해짐
- 근로장려 : 정부는 근로 유인 증대를 위해 근로세액공제(arbeidskorting)를 조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이 낮아지게 되어 시간제 근로자이면서 최저임금 미만을 버는 사람들은 2026년에 더 높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게 됨
- 청량음료나 과일 주스에 소량의 유제품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비알코올 음료 소비세(Verbruiksbelasting van alcoholvrije dranken)를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재원 확보 및 상쇄 조치

-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디젤에 대한 소비세

13) 네덜란드는 크게 세 가지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대부분의 일반 상품 및 서비스(의류, 전자제품, 주류 등)에 대한 일반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21%이며, 일부 상품 및 서비스(필수 생활 용품 및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에는 9%의 감면세율, EU외 국가로의 수출, 국제 운송 등에 대해서는 0% 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자료 :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율 관련 내용을 참고함,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btw/tarieven_en_vrijstellingen/, 검색일자, 2025.12.4.

14)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일명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기도 함. CBAM에 따라 CBAM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 이는 CO2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거나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EU 내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함. CBAM 규정은 직접 적용되므로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으나, 이행을 위해서는 환경관리법의 추가 조항이 여전히 필요함

인하*를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할 계획

- ◆ 2022년 당시 내각은 치솟는 유가를 다소 완화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유류 소비세 인하를 단행
- ◆ 이는 일시적인 조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2026년에도 휘발유 리터당 0.79유로, 디젤 0.52유로, LPG 0.19유로의 소비세율이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
- 이로 인해 발생하는 17억 유로의 세수 감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입 및 지출정책으로 충당할 계획
 - ◆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과 관련된 세입을 활용
 - ◆ 이싱가 법안 77(Idsinga 법안 77)*과 관련된 세입을 활용
 - * 하원의원이었던 폴커트 이싱가(Folkert Idsinga)가 주도했던 법안(2024년부터 효력 발생)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철회 및 도박세 등 대체 자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내용이 담겨있음
 - ◆ 해외근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인 역외비용제도(Extraterritoriale Kosten)*를 축소하여 확보되는 세입을 활용
 - * 네덜란드 정부가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고용주가 고속선 이주 근로자의 총 급여(Gross Salary) 중 30%를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Tax-free)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 기존 세입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사용

3 | 수입 및 지출 전망

가 수입 전망

» 2026년 일반정부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218억유로(5.1%) 증가한 4,514억유로로 전망

- 2026년 총 재정수입은 크게 세금(3,016억유로, 65.7%) 및 국민보험료(449억유로, 10.4%)와 직장보험료(1,049억유로, 23.9%)로 구성
- 2026년의 전년대비 218억유로 증가한 수치는 내생적 성장(endogene groei)(187억유로)과 정책조치(31억유로)에 기인¹⁵⁾
 - (내생적 성장 기여요인) 소비증가로 인한 매출세 증가, 주택매매 건수 및 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 보험료 증가 등
 - (정책조치 요인) 숙박업(캠핑 제외)에 대한 낮은 VAT세율 폐지로 인한 매출세 증가 및 유류세 임시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 의료보험료의 하향 변동 등
- 2027년에는 정부의 재정수입이 4,753억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5,343억 유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표 3 〉 네덜란드 재정수입 추정치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세금 및 국민보험료	314.0	328.0	346.5	361.0	375.5	390.6	405.6
-세금	275.5	283.8	301.6	313.0	324.7	337.9	350.3
-국민보험료	38.5	44.2	44.9	48.0	50.8	52.8	55.3
직장보험료	94.9	101.6	104.9	114.3	119.4	123.8	128.7
재정수입	408.9	429.6	451.4	475.3	494.9	514.4	534.3
전년대비 증감금액	-	20.7	21.8	23.9	19.6	19.5	19.9
증감요인							
-경제성장	-	19.2	18.7	16.6	19.2	17.3	18.7
-정책조치	-	1.6	3.1	7.3	0.4	2.2	1.2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2025.9.16. Tabel 6 발췌,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9911170>, 검색일자: 2025.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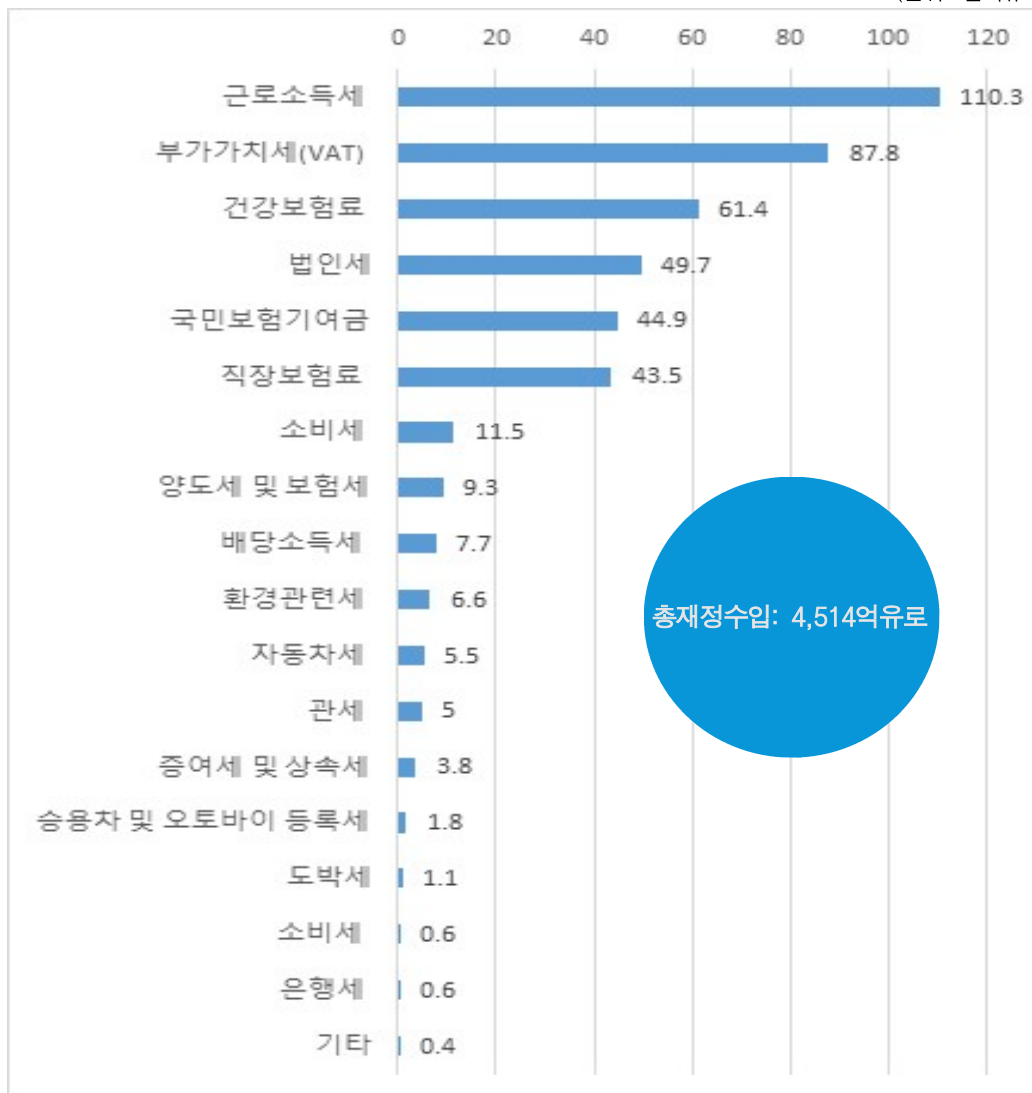
15) 재정수입 분류시 내생적 성장은 경제 시스템 내부의 역동성(생산성 향상, 인적 자본 축적 등)에 의한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의미하며, 정책조치는 정부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입한 결과로 인한 세수변화를 의미함

» 2026년 일반정부 재정수입의 구성 및 추정치 현황

- 2026년 4,514억의 재정수입 중 근로소득세(24.4%), 부가가치세(19.4%), 건강보험료(13.6%), 법인세(11.0%), 국민보험료(9.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그림 4>참고)

< 그림 4 > 2026년 네덜란드 재정수입 전망

(단위: 십억유로)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2025.9.16. Figuur 21 재구성, P.56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9911170>, 검색일자: 2025.11.12.

나 지출 전망

» 2026년 총순지출¹⁶⁾은 전년대비 464억유로(9.2%) 증가한 5,532억유로로 전망

- 네덜란드 정부의 총순지출은 2024년 5,068억유로에서 2030년 6,253억유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는 주로 사회보장 및 의료 분야 지출 증가에 기인
- 네덜란드 정부의 지출 분류 방식과 예산체계는 다음과 같음
 - 순지출은 중앙정부의 총지출에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지출은 자원(자금 출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 일반예산 순지출: 세금으로 충당되며, 의회가 예산안을 채택하여 승인한 지출
 - ◆ 사회보장 순지출: 주로 사회보험료로 충당되는 의료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을 의미
 - 지출통제를 위한 연간 지출 체계¹⁷⁾포함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 지출체계 내 지출: 대부분의 순지출이 이 연간 지출 체계에 포함
 - ◆ 지출체계 외 지출¹⁸⁾: 차입금, 중앙정부의 사회기금 분담금, 국유지 매각 수익금 등

〈 표 4 〉 2025년~2030년 네덜란드 지출 실적 및 전망

(단위: 십억유로)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구분(자원별)						
일반예산 순지출	320.8	354.7	337.0	354.4	364.7	379.4
사회보장 순지출 ¹⁾	186.0	198.5	211.9	223.0	234.5	245.9
- 사회보장 순지출	87.5	93.0	98.2	103.1	108.7	113.9
- 의료 순지출	98.5	105.5	113.7	119.9	125.8	132.0
총 순지출	506.8	553.2	548.9	577.4	599.2	625.3
구분(지출체계 관련성)						
지출체계 내 순지출(A)	422.9	449	481.2	497.6	515.5	535.8
지출체계 외 순지출(B)	83.9	104.2	67.7	79.8	83.7	89.5
총 순지출(A+B)	506.8	553.2	548.9	577.4	599.2	625.3

주: 1. 사회보장 지출은 의료와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며 대부분 사회 보험료로 충당되며, 지출체계 외부에 배치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2025.9.16. 부록 Tabel 2.1 발췌,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bijlage/9926749>, 검색일자: 2025.11.13.

16) 총순지출은 중앙정부의 실제 지출 계획을 보여주는 네덜란드 내부의 예산 지표이며,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유럽 기준(EMU)에 맞추어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 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임

17) 지출통제를 위한 연간 지출 체계(Uitgavenkaders)는 네덜란드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추세 기반 재정 정책(Trend-based fiscal policy)'의 핵심 수단으로, 내각 출범시 임기(보통 4년) 동안 매년 지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Ceiling)를 실질가격 기준으로 미리 설정함. 경기변동으로 인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견히더라도 이 한도를 넘어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어도 한도 내에서는 계획된 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됨. 이를 통해 예산지출과 경기변동을 분리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함

18) 지출체계 외 순지출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거나 경기 대응을 위해 유연성이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됨

- 아래 <표 5>는 일반예산의 모든 개별 장(예: 국왕, 총회, 외교, 국방, 교육 등)에 명시된 2025~2030년 순지출 금액을 보여줌
 - 정책 관련 조항과 비정책 조항으로 나뉘지만, <표 5>에서는 총액만 표시
 - 사회·고용, 교육·문화·과학, 지방자치기금, 보건·복지·스포츠가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국방·정의·외교·국가 부채 관리는 중간 규모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일부 항목(기후·녹색 성장, 국가부채, 모빌리티 펀드 등)은 특정 연도에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데, 이는 정책변화나 회계처리 방식의 영향을 반영
- 주요 지출 항목별 동향을 살펴보면 2025~2030년 네덜란드 중앙정부의 순지출 구조는 복지·보건 중심의 확대, 국방 현대화, 기후정책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됨. 동시에 국가부채 관리 비용 증가는 향후 재정 운용의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사회 및 고용)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령화·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지속적 증가세(2025년 587억 유로 → 2030년 727억 유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교육·문화·과학)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효율화 및 구조조정으로 소폭 감소(2025년 569억 유로 → 2030년 538억 유로)할 것으로 전망
 - (보건·복지·스포츠) 의료비 증가와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강한 증가세(2025년 342억 유로 → 2030년 463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지방자치기금) 중앙정부 직접 지출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지원 비중은 축소(2025년 476억 유로 → 2030년 443억 유로)될 것으로 전망
 - (국방 및 장비기금) 국방부는 인력·운영비 축소에 감소(2025년 146억 유로 → 2030년 116억 유로)전망이며, 국방장비기금은 국방 현대화로 인해 증가(2025년 103억 유로 → 136억 유로) 전망
 - (국가부채 관리) 금리 상승 및 채무 관리 비용 증가로 급격한 확대(2025년 -4억 유로 → 2030년 62억 유로)가 전망
 - (기후·녹색 성장 및 기후기금) 기후·녹색 성장 관련 예산은 변동성이 크며(2025년 24억 → 2027년 -75억 유로 → 2030년 35억 유로), 기후기금은 에너지 전환 및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 확대를 반영하여 확대(2025년 0 → 2030년 21억 유로) 전망

- 망명·이주 :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축소(2025년 82억 유로 → 2030년 19억 유로)

〈 표 5 〉 2025~2030년 네덜란드 일반예산 장별 순지출

(단위: 십억유로)

항 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왕	0.06	0.06	0.06	0.06	0.06	0.06
총회 (Staten-Generaal)	0.29	0.28	0.27	0.28	0.26	0.26
기타 고등 국가 평의회·내각	0.20	0.21	0.21	0.20	0.19	0.20
총무 (Algemene Zaken)	0.11	0.10	0.10	0.10	0.10	0.10
왕국 관계	0.16	0.07	0.09	0.03	0.01	-0.18
외교	10.8	11.9	15.2	16.8	17.3	17.8
정의·보안	17.2	16.8	17.0	16.9	16.9	16.6
내정	3.5	2.7	2.6	2.3	1.9	1.8
교육·문화·과학	56.9	54.6	56.0	54.5	54.1	53.8
국가 부채(발생주의)	-0.44	1.16	1.17	3.17	5.44	6.19
재무부	24.6	19.8	8.3	6.8	6.2	6.3
국방	14.6	21.1	11.6	11.3	11.4	11.6
인프라·수자원 관리	14.0	3.2	2.8	2.6	2.5	2.6
경제 업무	2.9	2.8	2.6	2.4	2.1	2.3
농업·어업·식량·자연	4.1	4.2	4.2	3.6	3.9	3.9
사회·고용	58.7	63.1	65.1	66.9	70.2	72.7
보건·복지·스포츠	34.2	38.9	40.9	42.4	44.3	46.3
대외무역·개발협력	3.6	3.5	3.7	3.8	3.9	4.1
망명·이주	8.2	8.9	5.2	3.3	1.9	1.9
주택·공간 계획	8.5	8.8	9.6	9.1	9.1	8.9
기후·녹색 성장	2.4	11.4	-7.5	1.7	2.2	3.5
지방자치기금	47.6	47.5	46.1	44.6	44.5	44.3
지방 주기금	4.0	3.7	3.6	3.7	3.7	3.5
모빌리티펀드	0.24	10.0	10.5	10.4	10.6	10.6
동물건강기금	-0.02	0.0	0.0	0.0	0.0	0.0
지방자치단체 기금 증가분 (Accres Gemeentefonds)	0.0	0.7	2.8	4.9	6.9	9.5
주 정부 기금 증가분 (Accres Provinciefonds)	0.0	0.2	0.4	0.5	0.7	0.9
BES기금	0.10	0.10	0.10	0.10	0.10	0.10
델타기금	0.03	1.8	2.1	1.7	1.6	1.6
국방장비기금	10.3	13.4	13.8	14.6	14.5	13.6

(단위: 십억유로)

항 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가성장기금	0.0	0.15	0.6	1.1	0.3	0.7
기후기금	0.0	0.5	1.7	2.2	2.6	2.1
가격조정	0.0	1.4	2.8	3.4	4.5	5.9
노동조건	0.0	2.8	5.9	9.0	11.5	14.5
급여연동	0.0	1.2	2.3	3.4	4.5	5.6
추가항목	-5.9	-2.2	5.2	6.5	4.7	6.0
통합(Consolidatie)	0.0	0.0	0.0	0.0	0.0	0.0
합계	320.8	354.7	337.0	354.4	364.7	379.4

주: 1. 회계 기준 : 대부분의 예산 장은 현금지출 기준으로 작성, 국가 부채 장(9A)만은 부분적으로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하며, 국가 부채 상환 지출은 이 표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2025.9.16. Tabel 2.4를 재정리,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bijlage/9926749>, 검색일자: 2025.11.28.

» 2030년 정책분야별 순지출금액은 2025년에 비해 340억유로 증가한 4,710억유로로 전망

- 의료(140억유로), 사회보장(110억유로), 외교(80억유로), 국방(60억유로) 분야에서 증가 폭이 클 예정
 - 의료 및 사회보장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기술 발전,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사회문화적 추세 등을 주요 요인으로 매년 증가
 - 사회보장 지출 증가요인은 주로 고령화에 따른 노령연금 지출(약 55억 유로)과 2029년에 도입될 보육관련 지출*(약 27억 유로) 증가에 기인
 - * 맞벌이 부모에 대한 무상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 외교부(BZ)의 80억 유로 증액은 네덜란드의 EU 기여금 추정액 72억 유로와 복구 및 복원 기금(HVF) 수입에 기인
 - 국방비는 법적의무¹⁹⁾,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확대, 전투력 현대화 및 전력보강 등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 국방비는 재정방위의무법에 따라 2025년 이후 GDP의 최소 2%에 고정되어있으나, 2025년 6월 NATO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단계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 정부의 과도정부 지위로 인해, 이러한 증액에 대한 예산 처리 및 자금 조달계획은 새 정부에 위임될 예정

- 지출이 감소하는 분야는 재정(국가 부채 제외), 망명 및 이민, 교육분야로 예상
 - 교육·문화·과학 예산은 2025년(570억유로)에서 2030년(540억유로) 사이에 30억 유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교육지출 감소는 학생 수 감소 예상에 기인
 - 우크라이나 실향민 비용을 제외한 망명 및 이주 예산은 약 4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표 6 〉 2025~2030년 네덜란드 정책 분야별 순지출 전망

(단위: 십억유로, %)

항 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년과 2030년 차이
의료	112	115	121	123	124	126	14
사회보장	113	116	117	119	122	123	11
지방 기금	52	51	52	52	54	56	5
교육, 문화, 과학	57	55	56	55	54	54	-3
국방(방산물자 기금 포함)	20	24	24	25	26	26	6
외교(개발원조 포함)	14	15	18	21	21	22	8
법·안보	17	17	17	17	17	17	-1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	14	15	15	15	15	15	1
주택 및 공간 계획	8	9	10	9	9	9	0
재정(국가부채 제외)	12	9	11	10	6	6	-5
기후 및 녹색 성장 (기후기금 포함)	2	12	-5	4	5	6	3
농업, 어업, 식량 안보 및 자연	4	4	4	4	4	4	0
경제(국가성장기금 포함)	3	3	3	4	2	3	0
내무부 및 왕국 관계부(BES기금 및 고위 국가위원회 포함)	4	4	4	3	3	2	-2
망명과 이주	5	6	2	2	2	2	-4
국무총리실과 국왕(Algemene Zaken en De Koning) ¹⁾	0	0	0	0	0	0	0
총 금액	438	462	451	462	465	471	34

주: 1. 국무총리실(Algemene Zaken)은 네덜란드 총리가 이끄는 부서로 총리와 내각의 주요 정책 결정, 국정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왕(De Koning)은 네덜란드 국왕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2. 해당 표에는 시 기금과 지방 기금 지출 및 우크라이나 관련 지출과 우크라이나 난민 국내 수용 관련 지출이 제외되어 있음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2025.9.16. Tabel 5,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9911147#ID-fn-9911147-t-p84>, 검색일자: 2025.11.13.

» 네덜란드는 전쟁, 복구, 재건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도덕적으로 적극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우크라이나의 총 예상 순 지출액은 63억 유로로 계획됨²⁰⁾

- 2026년 국제적 지원 규모는 34억 유로로 추산되며, 이 중 26억 유로는 군사 원조, 9억 유로는 비군사적 원조에 사용
 - 군사지원은 주로 군수품 공급에 중점을 두며, 비군사적 지원은 인도주의적 목적과 재건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며, 양자 및 다자 채널을 모두 사용
- 특정목적의 지출을 위해 국내 규정²¹⁾에 책정된 자금은 2026년 약 29억 유로로 추산되었으며, 그 중 27억 유로는 우크라이나 실항민 수용에 사용
- 공급 안보(Supply Security)* 관련 2026년 지출은 추산되지 않았음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고 천연가스 공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국영에너지기업(EBN)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스 저장시설에 가스를 저장
 - 2027년 부터는 이러한 가스저장비용을 운송요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가스 사용자(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공급 안보 비용을 회수할 계획

〈 표 7 〉 우크라이나에 대한 순지출 전망

(단위: 백만유로)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국제적 지원(A)	5.600	3.419	1.410	0.606	0.148	0.045
- 군사 지원	4.822	2.563	0.965	0.597	0.145	0.040
- 비군사적 지원	0.778	0.856	0.445	0.009	0.004	0.005
국내 규정(B)	2.715	2.855	2.817	1.021	-	-
- 이주민을 위한 쉼터	2.443	2.665	2.431	0.745	-	-
- 의료	0.290	0.190	0.385	0.277	-	-
- 교육	- 0.019	-	-	-	-	-
공급 안보(Supply Security)(C)	0.074	0	- 0.019	- 0.019	- 0.019	- 0.019
총 우크라이나 관련 지출(A+B+C)	8.389	6.274	4.208	1.609	0.130	0.026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Miljoenennota 2026, 2025.9.16. Tabel 8 발췌,
<https://www.rijksfinancien.nl/miljoenennota/2026/9911009>, 검색일자: 2025.11.18.

20) 이 추정액은 우크라이나의 특정 지원책을 포함하며, 정기적인 국가지출에 포함되는 우크라이나 실항민 관련 지출은 제외된 것임
 21) 이 재정 규정은 다음 두 가지 법적 틀(임시 보호 지침(RTB), 우크라이나 실항민 수용에 관한 임시법(AP))과 연관되어 있음. 임시 보호 지침은 유럽 연합의 지침으로, 우크라이나 실항민에게 임시적인 보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실항민 수용에 관한 임시법은 (RTB)만료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우크라이나 실항민에 대한 수용을 1년 동안 지원하도록 하는 네덜란드 국내법임

4 | 주요 정책

가 사회·복지 및 노동

1) 보건 및 돌봄시스템 효율화

» 노인 돌봄, 청소년 돌봄, 장애 돌봄 등 예방, 협력, 미래 대비 돌봄에 중점

-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 수당 인상
 - 건강보험료는 1인당 월 평균 3유로(156유로→ 159유로) 인상
 - 2026년에는 미혼자의 최대 의료보험 수당이 131유로가 될 예정(이는 2025년 대비 1유로 증가한 수치)
- 보충적인 돌봄 및 복지 협정(Aanvullend Zorg- en Welzijnsakkoord, AZWA)의 준비 및 실행을 위해 2026년 최대 1억 2,500만 유로가 배정
 - 2027년부터 보건부는 AZWA로부터 7천만 유로를 의료 예방에 구조적으로 투자하여 '돌봄에서 예방으로' 이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의료 및 사회 분야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AZWA에 4억 유로가 배정될 예정
- 2026년에는 노인 돌봄 개요 협정²²⁾을 위해 3,900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2027년부터는 연간 구조적으로 6천만 유로가 될 예정
- 202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기초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청소년 돌봄 지원 서비스 재원 부족 보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7억 2,800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며, 안전한 청소년 돌봄을 위해 1억 8천만 유로를 책정
 - 청년 개혁 의제(2023-2028)를 통해 부처는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 방식에서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돌봄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 장애인 돌봄 및 지원을 위한 미래 의제(2023-2026)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2026년에는 2억 6,300만 유로가 투자될 예정
 - 장기요양법(Long-term Care Act)에 따라 의료 및 돌봄 기관에 지급하는 수가

22) 노인 돌봄 개요 협정(2025-2028)은 노인 돌봄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 협약을 통해 보건부는 고령화 인구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시장 부족 심화, 노인을 위한 적합한 주거 공간 부족문제를 다룸

(요율) 인상(1억 1,200만 유로), 돌봄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유지보수(1억 4천만 유로), 고위험 및 복합적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1,100만 유로)이 포함

2) 노동 안정성 확보와 취약 계층 지원 확대

» 임금인상, 고용 안정성, 사회보장제도 간소화에 중점

- 청년들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청년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
 - 네덜란드의 청년 최저 임금은 성인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2027년에는 해당 비율을 인상 예정
 - ◆ 현재 대비 2027년 비율 변화: (20세) 80%→87.5%, (19세) 60%→75%, (18세) 50%→62.5%, (17세) 39.5%→50%, (16세) 34.5%→40%
- 노동 소득자의 구매력과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1단계 세율 인하를 통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구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
 - 첫 번째 단계(소득 약 38,900유로)의 세율을 35.82% → 35.70%로 인하하고, 두 번째 구간(소득 38,900유로~79,100유로)의 비율은 37.48% → 37.56%로 인상할 예정
- 정부는 재통합 보고서(Re-integration Report, RIV)²³⁾ 평가방식 변경을 통해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장기 휴직자의 업무 복귀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 직업 안정성 확대를 위한 여러 개의 법안 도입 추진 중
 - 실업수당 최대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법안(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을 준비 중
 -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장기 장애 시 소득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무 기본 장애 보험(BAZ) 도입 추진 중
 - 유연 근로자 보호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해 '유연 근로자 안정 강화법' 법안과 함께 정부는 2027년부터 제로아워 계약을 대역폭 계약*으로 대체
 - * 최소 근무시간(하한선)과 최대 근무시간(상한선)을 명시하여 '근무 시간의 범위(대역폭)'를 설정하는 계약
- 정부는 워라벨 개선과 노동 참여 증가를 위해 휴가제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

23) 네덜란드에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업무 복귀(재통합)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재통합 보고서(RIV)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기 휴직(최대 2년)을 할 경우, 그동안 고용주와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록한 공식 활동 증빙 서류임, 정부는 이 RIV평가 과정에서 행정중심의 서류검토에서 숙련된 의료 전문가 중심의 실질적 복귀지원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함

중으로 이 법안이 2027년 7월 1일에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는 2026년에 보육재정 조달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복잡했던 보육수당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보육수당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 부모가 정부로부터 수당을 환급받는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보육 단체가 직접 재정을 처리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지급방식으로 전환

나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자

- 주택시장 관련 예산은 2025년 약 72억 유로에서 2026년 77억 유로로 증가할 전망
-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으로 2026년에 약 3억 6,200만 유로를 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저렴한 주택 한 채당 7,000유로의 기여금을 받게 되게 됨
- 긴급 구급자²⁴⁾, 실향민, 허가 소지자²⁵⁾ 등 취약 대상 집단을 위한 주택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플렉스 및 트랜스포메이션 주택 인센티브 제도²⁶⁾(주택당 20,000유로)를 확대하여 기존 1억 유로 예산에 추가로 7,900만 유로를 배정
-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주택 협회의 투자 여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당초 2025년과 2026년 2년간 사회 주택 임대료를 동결하려던 계획(2025년 봄 각서 내용에 포함)을 철회²⁷⁾
 -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면서, 동결 시 발생할 손실 보전용으로 편성되었던 2억 7,000만 유로의 보조금과 약 10억 유로 규모의 일회성 임대료 수당 및 투자 계획도 함께 취소

24) 긴급 구급자(Spoedzoekers)는 주거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곤경(예시, 가정 폭력 피해자,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상실)에 처해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단기적으로 주거해결이 필수적인 개인이나 가구를 의미함

25) 허가 소지자(Vergunninghouders)는 네덜란드 사회에 정착이 필요한 특정 취약 계층을 가리키는 네덜란드 법률 용어로 일반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네덜란드에 영주할 수 있는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함

26)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립식 주택' 건설이나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27) 내각은 2026년 구매력 전망은 긍정적이며, 임금이 가격(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되고, 최근 몇 년 동안 임대료 지원금이 빈번하게 인상되어, 임대비용의 부담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함(자료 : 임대정책 관련 네덜란드 의회 문서(Kamerstuk),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kst-27926-401.html>, 보도일자, 2025.9.17., 검색일자, 2025.12.4.)

다 **인프라 및 환경·에너지**

1)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 분야

» **국가 교통망의 유지보수와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및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중점**

-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를 위해 모빌리티 펀드에서 56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제방, 홍수방지 등 상수도 사업에 델타기금으로 19억 유로를 사용할 계획
- 대중교통 접근성 및 안전을 위해 도시 대중교통보조금(BDU)의 10% 삭감안을 폐지할 계획. 이는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도시 내 교통 체증 및 환경 문제 해결에 대중교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조치임
- 네덜란드 철도회사(Nederlandse Spoorwegen) 직원들의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바디캠 구입을 위해 1,200만 유로를 배정
-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리 연구 및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대비를 위해 기후기금에서 2030년까지 총 6,900만 유로가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 예산으로 이체될 예정
- 스키폴 공항은 시설을 원하는 수준으로 복구하고,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예상되는 승객 증가를 처리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투자할 예정

2) 기후변화 및 환경 대응

» **기후기금을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금 정책을 시행**

- 정부는 가스 저장에 대한 유럽 및 국가 충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 연간 9,200만 유로(총 5억 1,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Energie Beheer Nederland(EBN)에 지원. 정부는 내년에 가스 구매와 가스 가격 상승 시 추가 보증금을 위해 EBN에 78억 유로 이상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
- 기후기금(Klimaatfonds)을 활용하여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9억 4,800만 유로) 및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IKC-ETS, 1억 5천만 유로)과 관련된 보조금 등을 지원
-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산업에 대한 CO2세를 톤당 78.67유로로 인하하고, 기업이 세금 없이 배출할 수 있는 면제 배출권의 수도 증가시킴. 그러나,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세금은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²⁸⁾

3) 농림수산, 식량안보

» 미래에 대비한 식품 시스템, 자연복원, 질소배출 감소, 농민의 수익 창출 능력 및 회복력 있는 어업에 중점

- 질소배출 감소와 자연복원을 위해 26억 유로를 배정(2028년부터 2030년에 미리 예약되어 있음)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마련된 후 집행 예정
- 질소배출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질소 배출량이 특히 많은 가축농장의 폐쇄 혹은 이전 또는 (일시적) 축소에 사용하기 위해 2026년에 약 10억 유로를 배정
- 2026년 지속 가능성 및 자연 복원을 위한 주 차원의 조치 패키지에 대해 2억 9,500만 유로를 배정

라 교육 및 혁신·기술

1) 교육

» 교육기회제도에 대한 삭감을 되돌리고, 국가성장기금을 통해 자원을 제공하며 초등 교육의 기본역량 향상에 집중

- 교육기회제도²⁹⁾의 폐지를 되돌리고, 2026년에 구조적 기준으로 1억 8,600만 유로 지원할 예정
- 2026년에는 정부가 초등교육 학생들의 필수 기본능력(언어, 수학, 시민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1억 6,400만 유로(2025년 대비 2,400만 유로 증가)를 지원할 예정
- 국가성장기금은 2026년에는 개발 발전 프로젝트에 2,900만 유로, Npuls에 4,000만 유로, 바이오테크 부스터에 2,880만 유로를 이전할 예정
- 정부가 학교 및 환경 프로그램에 2026년에는 1억 6,700만 유로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과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 확보 및 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제학생수 유입을 제한하는

28) 2027년부터 폐기물 소각장(AVD)의 CO2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에는 톤당 295유로로 상향할 것이며, 면제배출량은 2030년부터 2033년부터 0으로 점차 폐지될 예정

29) 교육기회제도(Onderwijskansensbeleid)는 네덜란드 정부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주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정됨. 학교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소규모 학급 운영, 보조 교사 고용,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방과 후 활동 등을 제공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함. 하원이 삭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에 정부가 폐지안을 철회하여 2026년에도 유지될 수 있게 되었음(<https://www.rijksfinancien.nl/memorie-van-toelichting/2026/OWB/VIII/onderdeel/9534238>)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에 지급되는 학생 1인당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고등교육예산을 매년 1억 6,800만 유로씩 삭감할 예정

- 초중등 학교에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억 3,500만 유로를 예산으로 배정

2) 혁신 및 기술분야 투자

» 네덜란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혁신, 확장(Scale-up), 국가 AI 공장 건설에 투자

- 정부는 미래의 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국가AI 공장 건설을 위해 총 1억 2,800만 유로를 배정
 - 이 AI 공장의 실현을 통해 정부는 AI 관련 지식, 혁신, 인재를 증진하고 네덜란드와 유럽의 경쟁 위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성장기금(NGF)을 활용하여 암 연구를 목표로 한 Onco-PACT 프로젝트(2억 8,400만 유로) 및 포토닉스 기술에 중점을 둔 포톤델타 프로젝트(4억 2,100만 유로)등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
- 정부는 혁신적인 스케일업 기업들이 유럽 벤처 캐피탈에 덜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 2억 유로를 배정하였음. 또한,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AST) 관련 공동 유럽 이해관계 중요 프로젝트(IPCEI)에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MKB),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2억 3,000만 유로를 배정

마 국방 및 국제관계

1) 안보 및 국방투자 확대

»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와 NATO회원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라 안보 분야의 투자를 확대

- 네덜란드는 NATO 지출 목표(GDP 대비 2%)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방위 산업 및 혁신 전략 (D-SII)을 통해 산업 및 혁신 규모 확대를 위해 11억 5천만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AI, 드론,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양자(Quantum), 우주 항공과 같은 기술에 중점을 둠

- 국방예산의 핵심 목표는 증보병 역량, 방공(대공 방어) 및 탄약 비축량 확대, 그리고 지휘 통제 시스템, 사이버 능력, 우주 항공의 현대화임
-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유지보수 및 개선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어뢰 교체, 헬리콥터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지원
- 국방물자예산기금(DMF)의 유지보수 자금이 증액되어, 2026년에 1억 9,700만 유로로 이전 연도 대비 증액되었다가 2030년에는 1억 2,100만 유로로 점차 감소할 예정
- 국방부는 2026년에 전투력, 인프라 및 디지털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134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기타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육상장비(26억 유로), 항공장비(26억 유로), IT(19억 유로), 해양장비(23억 유로), 의류, 탄약, 장비 등(20억 유로)이 있음

2) 국제 안보 증진 및 개발협력에 대한 투자 강화

» 글로벌 안보 및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협력, 국제 안보, 개발 협력 및 영사 서비스에 투자할 계획

- "효과적인 유럽 협력(Effectieve Europese samenwerking)"³⁰⁾ 관련 예산은 2026년 150억 유로에서 2030년 약 180억 유로로 증가할 예정
 - 네덜란드의 EU 예산 납부액인 국민총소득(BNI) 분담금은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6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이는 EU 예산 기준 변경, EU BNI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5.9%→ 6.4%), 코로나 회복 기금(Next Generation EU)³¹⁾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제공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상승에 기인
-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입 물량 위축 및 EU차원의 관세 수입 예측치 하향 조정 등으로 EU 수입 관세 징수액³²⁾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로 인해, 징수비용 보상금(perceptiekostenvergoeding)* 수령액이 2025년 2,900만 유로에서 2030년 2,200만 유로로 감소할 예정

* EU 회원국이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 비용(인건비, IT

30) "효과적인 유럽 협력(Effectieve Europese samenwerking)"은 네덜란드가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EU의 공동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EU회원국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적인 기여금(분담금)을 포함하는 예산 항목에 해당

31) Next Generation EU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즉각적인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연합(EU)의 7,500억 유로 규모(2018년 가격 기준)의 기금으로 임시적으로 운용되며, EU회원국의 개혁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함. 이 기금은 EU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 중 하나이며, EU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부채를 발행하여 조성됨(출처 : European Union 홈페이지,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glossary/nextgenerationeu.html>, 검색일자, 2025.12.4.)

32) EU관세 징수구조를 살펴보면, EU관세동맹(Customs Union) 원칙에 따라 징수한 관세의 75%는 EU 공동 예산으로 귀속되며, 징수국(네덜란드 등)은 나머지 25%를 징수 비용 명목으로 수령함.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 항만인 로테르담 항을 통해 EU전체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징수대행 행정비용 보전금은 네덜란드 비조세 수입의 주요 항목이 되고 있음

시스템 운영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세 징수국에 EU가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보상금

- 2026년에 국제 안보 및 안정을 위해 3억 4,000만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임시 임무 및 기금 종료에 따라 2030년부터 2억 6,600만 유로로 감소
- 국제 법치 및 인권을 위한 추정 예산은 2025년 1억 2,800만 유로에서 2028년부터는 구조적으로 1억 1,200만 유로로 감소하며, 이는 주로 인권기금 삭감에 기인
- 국가 예산 중 2026년 대외 무역 및 개발 원조에 36억 유로가 책정되었으며, 이 예산은 2030년까지 지출이 41억 유로로 구조적으로 증가할 계획

바 사법 및 행정 등

1) 사법 및 교정 시스템 투자

» **법 집행 및 교정 시설의 인프라와 인력 문제를 해결하여 사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 보안 및 범죄 통제를 위해 경찰부문에 편성된 예산은 2026년 88억 유로이며, 기타 보안 및 범죄 대응에 대한 예산은 2026년 16억 유로로 예정
- 검찰청 예산은 2026년 9억 200만 유로에서 2030년 8억 6100만 유로로 감소할 예정
- 국가 안보 및 대테러 자금은 2026년 5억 1600만 유로에서 2030년 5억 6100만 유로로 증가할 전망
- 2027년까지 매년 2,500만 유로를 교도소 시스템에 투자하여 인력 부족 해소와 독방 부족 문제를 줄일 예정
 - 사법시설서비스청(DJI)³³의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8년부터 매년 2,500만 유로를 투자하며, 2031년부터는 구조적으로 5천만 유로가 배정될 예정

2) 지역사회 투자 및 정부 시스템 강화

» **지역재건 및 행정 효율을 위한 특별 예산 조정**

- 2026년 흐로닝언(Groninge) 지역의 가스 채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25억 유로가 배정되었음. 이 금액은 손상 복구, 건물의 보강 및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전망(일자리 기회 및 삶의 질 포함)에 투자하는 데 사용될 계획

33) 네덜란드 법무부 산하의 집행 기관으로, 네덜란드 내 모든 구금 시설 및 교정 서비스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는 건물 보강의 지속 가능성, 피해 및 보강에 대한 위험 유보, 수리 작업을 위한 장비 예산을 총 1억 4,140만 유로를 배정할 예정
- 정부는 조기 총선 조직을 위해 내무 및 왕국 관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이전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약 3,120만 유로에 해당
- 헌법재판소 설립을 위해 예약된 약 2,500만 유로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법무보안부(JenV)로 이전되어 교도소 시스템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2031년부터는 5천만 유로가 법무보안부로 구조적으로 이전될 예정
- 2025년에는 정부가 내무 및 왕국 관계부에서 경제부로 6천만 유로를 이전하여 AI 공장 설립을 위한 공동 자금 조달 신청을 할 예정
- 2026년부터 정부는 내무 및 왕국 관계부에서 매년 1,540만 유로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 디지털 정부 정보 포인트(IDO)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급할 예정

3) 망명 및 이민 관련

» 망명대책 실행 및 우크라이나 실향민 수용

- 망명 및 이민예산은 향후 몇 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6년 약 89억 유로에서 2027년 52억 유로로 감소하며, 2029년에는 19억 유로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듦 예정
 - ◆ 이는 난민수용 관련 정책 변화(난민유입 통제와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2028년부터 난민수용기관에 대한 예산 감소 계획)와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 감소에 기인
- 국정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망명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1억 1,500만 유로를 배정
 - 구체적 집행 내역은 유럽 이주 협정(Migratiepact) 관련 비용(2,350만 유로), 망명 비상 조치법 및 '이중 지위 시스템'(tweestatusstelling)³⁴⁾ 실행(2,000만 유로), 귀국 및 외국인법 실행(450만 유로), 외국인 구금 시설확장(560만 유로)임
- 2026년과 2027년에 우크라이나 실향민 수용을 위해 약 28억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실향민 수용을 위한 임시 보호 지침 연장을 위해 정부는 2027년과 2028년에 23억 유로 이상을 지원할 계획

34) 이중 지위 시스템(tweestatusstelling)은 네덜란드의 새로운 난민 정책으로 현재 법률로서 시행될 예정(2026년 법안 통과 및 시행 예정)에 있음. '이중 지위 시스템'은 망명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거주 허가를 영구지위(영구 거주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네덜란드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와 임시지위(본국 상황이 개선될 경우 네덜란드에 영구 정착할 희망을 줄이고,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유도)로 나누어 망명자 유입을 통제하고 재정지출을 삭감하려는 정책의 핵심장치임